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7
2024. 9

전라남도
여수 거문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K-관광섬**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섬단어 사전

03 바다사람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거문도 갈치, 섬 풍경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여수-거문도 바닷길 '하멜호' 취항

07 고두리영감제, 바다의 신(神)에게 풍어를 기원하다
거문도 해풍쑥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거문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09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바다생물 인문학 : 해삼(海蔘)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임석희 거문도 주민여행사 대표

12 김경수 거문리 이장

14 이춘광 거문도 덕촌리 어촌계장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6 거문도 투어 가이드

18 거문도 섬 여행 명소

20 <특집> 근·현대 신문 기사에서 만나는 거문도

NEWS & ISSUE :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2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참고문헌

정약전, 『자산어보(玆山魚譜)』, 1814
『조선왕조실록-고종실록(高宗實錄)』 24, 25권, 1887년~1888년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전라남도, 1910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전라남도, 『어촌속답집(漁村俗談集)』, 1980
이근우 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3-1 : 전라남도, 2018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보고서 - 거문도」, 2023
국가유산청 문화유산포털, 조선왕조실록(https://www.khs.go.kr/main.html)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섬여행 스토리북」10 – 여수 거문도·백도, 2014.
여수시 섬발전진흥과, 「여수~거문도 간 신규 여객선 '하멜호' 정식 운항 개시」보도자료, 2024.7.31.

도움 주신 분

여수시 삼산면사무소
임석희 거문도 주민여행사 대표
김경수 거문리 이장
이춘광 거문도 덕촌리 어촌계장
서수현 전남도청 주무관

섬 단어사전

바다사람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바다사람 #거문도 뱃노래

섬사람들은 뭍사람들에게 홀대받아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섬은 절해고도로 인식되었고 좌천된 이들의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왜구의 침략을 피해 섬을 비우기까지 했으니, 뭍사람의 관점에서 섬은 버려진 땅이었고 섬사람들 또한 경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잔존해있는 섬과 섬사람의 이미지 중 하나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섬 지역인 거문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다사람'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민속 전승과 연계시키고 있어서 주목된다.

주민들 스스로 '바다사람'의 긍지를 지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거문도 사람들은 '아무도 울릉도, 독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 조상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했다'는 역사적 자각을 하게 되었다. 조선이 영국에 영토를 점령당하기도 했는데, 거문도 사람들은 이때를 계기로 '학문이 뛰어난 섬'의 뜻을 지닌 거문도(巨文島)라는 지명이 고착되었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바다사나이'의 개척 정신으로 지역의 역사와 새 전통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거문도 사람들의 자긍심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뱃노래와 풍어제에서 드러난다. 뱃노래는 1972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각색되고 복원되면서 섬 주민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노래로 자리 잡았다. 어로 활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동요는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아 무형문화재가 되었고, 그 노래들은 고기잡이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연출되면서 울릉도를 개척한 조상 들의 내력을 담아내게 되었다.

바다제사의 일환인 풍어제는 1985년 수협이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되었다. 거문도 주민들은 30년이 넘도록 이를 계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맥을 다해가던 고두리영감제와 거북제 등을 풍어제 행사로 복원하여 거문도의 전통으로 내세웠다. 행사 날짜를 음력 4월 15일로 정하여 수협의 풍어제가 울릉도를 개척하는 선조들을 기리도록 했으며, 거문도의 역사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거문도 풍어제는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고, 섬의 전통을 새롭게 일구어내면서 바다사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출처 : 송기태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거문도 바다사람의 자긍심과 민속전승의 원동력 -거문도 뱃노래와 풍어제 전승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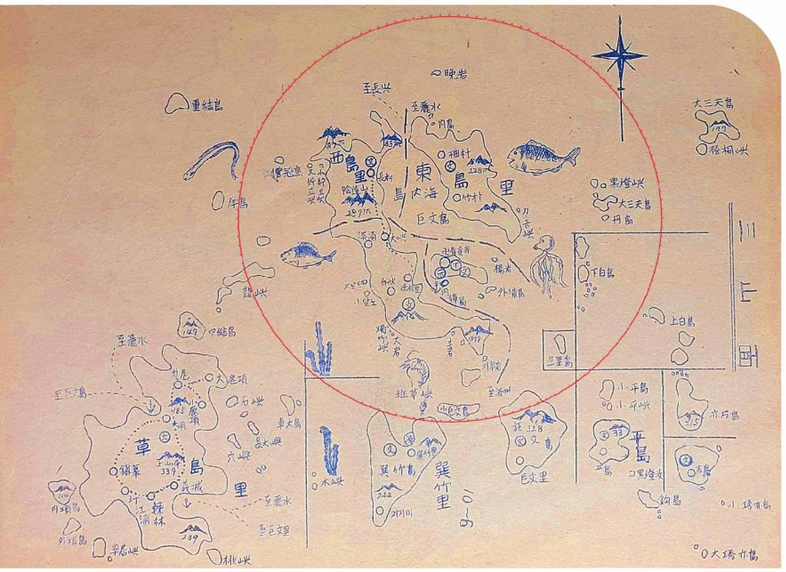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1965년 전라남도에서 제작한 『호남약도』에서 그림지도로 그려진 거문도는 오늘날 고도와 서도를 잇는 '삼호교'나 동·서도 사이에 놓인 '거문대교'가 있기 전 독립된 섬으로 자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점선으로 그려진 바닷길 '해도(海圖)'는 오늘날 거문도로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와 다르지 않은 점에서 흥미롭다. 이밖에 죽촌, 유촌, 장촌, 덕촌리 등 섬별 주요 마을과 더불어 무인도나 바위, 산, 연안 서식 수산물이 표기되어 있다.

거문도(巨文島)는 고도(古島)와 동도(東島), 서도(西島) 등 3개의 큰 섬과 대·소삼부도, 문도, 닭섬, 상·하백도 등 작은 섬을 합해 총 112개의 유·무인섬으로 이뤄져 있다. 조선 후기 이 섬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식한 조정(朝鮮)은 1887년 청산진을 거문진으로 옮기고 장흥부에 속한 생일도와 평일도, 흥양현 초도를 거문도에 편입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1896년 거문진을 폐한 후에는 초도와 손죽도를 상도(上島), 거문도를 하도(下島)라 하여 돌산군에 편입시켰다가 1910년 상·하도를 합하여 삼산면이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군에 편입된 후 1949년 여천군으로 이속됐다가 1998년 여수시로 통합되었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전라남도 편에서는 삼도(三島)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삼도'는 해도(海圖)에서 거문도로 기록한 것이며, 서도(西島), 동도(東島)와 고도(古島) 등 3섬이 가까이 떠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한 섬 같다. 섬 부근으로 수많은 도서가 흩어져 있지만, 삼도는 규모가 크고 배열된 위치가 독특하여 먼 곳에서 바라보아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각 섬 모두 수목이 매우 무성하여 경치가 좋다. 삼도 사이의 내해(內海)는 넓고 수심이 9길[1] 내지 15길에 이르러 큰 함선과 배 여러 척이 함께 정박할 수 있다. 항구는 북쪽에 1곳, 남쪽에 2곳 등 총 3곳이다. 마을은 동·서도 두 섬에 각각 두 개가 있는데, 호구(戶口)의 경우 총 513호, 2,229명이다. 해산물은 섬의 위치가 난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매우 풍부하다. 이들의 어채물 가운데 주된 것은 갈치, 삼치, 고등어, 방어, 정어리, 멸치, 도미 및 해조와 전복 등이다.

1) 길 : 물건의 높이나 길이, 깊이를 어림잡아 재는 단위로 1길은 사람 키 높이 정도를 말함

은빛갈치

아침 물결 따라 섬에 올라 신선함을 더하다
간밤의 여름 무더위가 식지 않은 이른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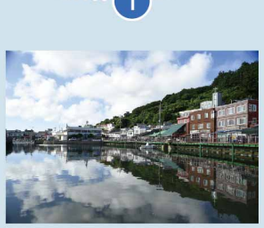
위판장 개시를 앞두고 고도(古島) 물양장에 기댄 배 한 척을 발견했다.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산스레 움직이는 어부들은 저마다
선도 유지를 위해 갈치의 무게를 재고 물고기 상자로 옮겨 담았다.

어장을 찾아 남해안과 제주도까지 왕래하는 탓에
거문도수협 위판장을 떠받드는 어획물의 무게는
예전의 명성에 비해 줄어든 듯했다.

하지만 거문도 주민들은 신선한 바다 향기 속에
빛나는 갈치와 만나려고 삼삼오오 열 지어 이곳을 찾았다.

전남섬발전지원센터 강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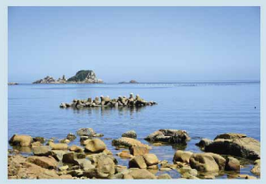
#여수시 #삼산면 #고도 #은빛바다 #거문도수협 #갈치



1 화려한 옛 영화를 간직한 고도(古島) 번화가

2 거문항에 정박한 배와 바다 너머 서도(西島) 덕촌리

3 거문대교 아래 해안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4 고도(古島)에서 바라본 바다 너머 밖노루섬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거문도 바다의 신(神)에게 풍어를 기원하다.

‘고두리영감제’

거문도 주민들은 예로부터 마을신[洞神]이나 용왕신[海神] 등을 모시고 행복과 안녕을 비는 민속신앙을 전승해왔다. 이와 같은 민간신앙은 고도와 서도에 자리한 당산(堂山)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고도 거문리, 서도 덕촌리와 유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거문도 ‘고두리영감제’가 알려져 있다. 옛날에 거문도 인근 바다에서 고등어가 많이 잡혔는데, 어획량이 적으면 풍어 기원을 위해 제(祭)를 지냈다. 이 제의는 일반적인 당제나 풍어제에서 바다나 산, 숲 등을 신격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고두리영감, 즉 고등어신(神)을 모시는 특성이 있다. 본래 서도 덕촌리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추씨 집안이 개인적으로 모신 데서 출발하여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고도와 서도 사이에 있는 안노루섬에서 진행됐다. 본래 섬에는 판자로 지은 한 칸짜리 기와집이 있었지만, 1959년 사라호 태풍 영향으로 훼손되면서 제단(祭壇)만 남았다. 1900년을 전후하는 시점에 고도(古島)로 대거 이주한 일본인들이 들목거리 해안(현 거문도 삼산파출소 앞) 언덕에 ‘삼도신사(三島神社)’를 지어, 오늘날에는 이곳에서 고두리영감제가 주민 들에 의해 거행되고 있다.

여수-거문도 바닷길

‘하멜호’ 취항

올해 7월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거문도항을 오가는 ‘하멜호’가 신규 취항했다. 승객 430명을 수송할 수 있는 하멜호는 최대 시속 80km로 빠른 운항이 가능해 2시간 20분 정도 걸리던 운항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쾌속선이다. 선박 투입으로 여수-거문도 간 여객선 운항 횟수도 하루 3회로 늘었다. 2010년대부터 기존 운항 여객선의 노후화나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 선박 수리에 따른 휴항 등으로 거문도 주민과 섬 여행객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웹매거진 ‘시옷’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섬 주민들은 안정적인 여객선 이용이 어려웠던 시절 속 기억을 떠올리면서 “의료나 교육, 개인 사무 등 다양한 일을 보려고 여수시로 가야 했다. 하지만 선박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고흥 녹동항으로 가는 차도선을 타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다. 지금은 오전·오후에 쾌속선이 다녀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기뻐하는 분위기였다. 섬에서 숙박업소나 식당,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안정화된 해상 교통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섬을 찾는 여행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거문도

해풍쑥

거문도를 대표하는 농산물로는 쑥이 있다. 그런데 쑥 농사가 활발히 이뤄진 데는 역설적이게도 인구 감소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섬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던 시절에는 보리와 고구마를 심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원양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바다로 멀리 나가는 청년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섬에는 자연스럽게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묵은 밭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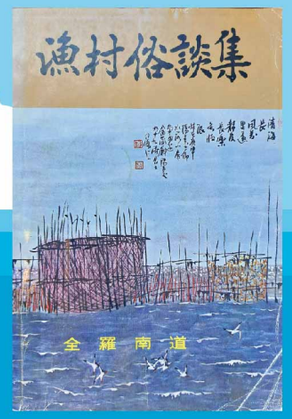
하지만 황폐해질 것으로 보였던 밭을 살린 건 추운 겨울에도 영하권에 접어들지 않는 거문도만의 기후 영향이었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내륙 지역보다 한 달 일찍 쑥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빠른 유통을 통해 수요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졌다. 2007년 거문도만의 농산물 브랜드인 ‘해풍쑥’에 가치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영농 법인을 설립과 함께 2008년 냉동 쑥 가공 공장이 조성됐다.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음료나 차, 약재, 음식 등 다양한 식문화 영역으로 활용도를 넓히는 추세다.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봄에 이르기까지 거문도 에서는 흰색, 파란색 그물이 펼쳐진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농사월력'**

1월부터 12월까지,
거문도 밭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해 산 물		농 작 물	
장 어	1월 ~ 12월	쑥	1월 ~ 4월
도 미	4월 ~ 8월	유채/마늘	3월 ~ 5월
멸 치	5월 ~ 7월	참 깨	5월 ~ 9월
갈 치	7월 ~ 11월	고구마	8월 ~ 10월
삼 치	10월 ~ 2월	감 자	9월 ~ 10월
고등어	11월 ~ 4월	보 리	11월 ~ 4월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모른 고둥 먼저 잡는다

▲통용 지역 : 여천 / 수집자 : 여천군 삼산면 김정길

1. 과학적 타당성

오른 고둥이란 수면 가까운 바위에 붙은 연체동물로 복족류(復足類)에 속하는 '나사조개'를 말한다.

2. 현대적 풀이

고둥은 수면에 가까운 곳에 붙은 것을 잡는 게 좋지만, 바다 깊이 부착된 것부터 잡으려 하다 보니 결국에는 모두 놓치고 만다는 뜻이다. 어업 작업 중 욕심을 부리면 신체에 해가 오고 작업 순서를 바꾸면 조업 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다생물 인문학
해삼(海蔘)

『자산어보』중에서

큰놈은 두 자 정도로 몸이 참외와 같다. 온몸에 잔 젖꼭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참외와 같다. 양쪽 머리가 미미하게 깎여 있으며, 그 한 머리에는 입이 있고, 다른 한 머리에는 항문이 있다. 배 안에 물체가 있는바, 그 모양이 마치 밤송이와 같다. 장은 닭과 같고 껍질이 아주 연하여 잡아 올리면 끊어진다. 배 밑에 발이 백 개나 붙어있어 잘 걷지만, 헤엄을 못 쳐 행동이 매우 둔하다. 빛깔은 새까맣고 살은 검푸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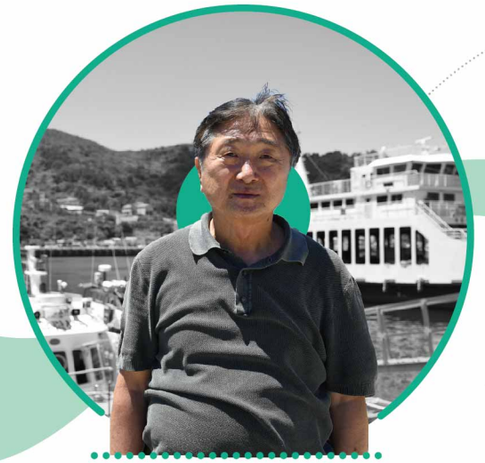
해삼은 우리나라 동·서·남 바다에 서식하는데, 잡으면 보통 말려서 판다. 전복과 담채(淡菜), 해삼을 '삼화(三貨)'라고 한다. 그러나 고금(古今)의 본초(本草)에는 이 삼화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세(近世) 들어 엽계(葉桂)의 <임증지남약방(臨證指南藥方)> 에서 많이 등장한다.

『전어지(佃漁志)』중에서

해삼(海蔘)은 본바탕이 온화해서 비위(脾胃)를 보하는 효험이 있다. 그 효험이 사람에게 인삼과 필적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오잡조(五雜粗)』에는 '해남자(海男子)', 『영파부지(寧波府志)』에서는 '사손(沙噀)'이라 하는데, 이 모두가 해삼을 말하는 것이다. 해삼은 비늘, 뼈, 꼬리, 등지느러미 등이 없다. 등은 둥글면서도 엷은 청색을 띠고, 배는 평평하면서 조금 희고, 온몸에는 혹이 나 있다. 큰 것은 5~7촌이다. 수중에 있으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노는데, 물체에 닿으면 오그라들어 둥근 공과 같다. 천천히 다시 불어 물에 잠기면 그 모양이 반쯤 짜개놓은 오이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이 있지만, 가죽이 갈라진 것 같고 이빨이 없다. 눈은 칼로 깎아낸 듯 하지만, 안구(眼球)가 없다. 해인(海人)들이 잡아서 불에 그슬러 짠 즙을 없애고 햇볕에 말리면 빛깔이 새까맣게 변한다. 얇은 댓조각 그릇에 담아 한 꼬지에 '십 매(枚)'를 끼어서 사방에 파는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 사람을 보익(補益)하는데 효험이 좋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의하면 해서는 그 창자를 담궈 장을 만들면 향기가 아름다워 말로는 다할 수 없다. 창자 속에는 적황색의 풀 같은 것이 있는데, 맛이 좋다고 했다. 우리나라 어가(漁家)에서는 해서를 잡으면 번번이 창자를 버리고 햇볕에 말리니 창자가 좋은 안주가 되는 것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거문도 주민여행사 대표

임석희

0:00 3:45

Q1 거문도에서 주민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A1 전통적으로 관광객들이 백도 관광 유람선을 비롯해 많은 여행 명소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는 여행 문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백도를 찾는 승객을 대상으로 입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학술 연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잠깐이나마 입도가 가능했다.
그런데 1987년을 기점으로 약 40여 년 가까이 입도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 유람선을 타고 섬 주변을 돌아보는 수준에 머무른다. 또 백도는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다. 훗날 걸어서 백도를 탐방하는 날이 오면 섬 주민이나 지역 활동가들이 섬 생태 교육 강사로 참여해서 체계화된 프로그램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리산 계곡을 개방한 사례와 거문도 백도 사례를 비교하면 일종의 차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전자는 일정 기간 개방해서 탐방객들이 도토리도 줍고 계곡을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자원 보호가 중요하다면 일시 개방하는 형태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Q2 거문도에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 시설이 충분한지?

A2 숙박 시설의 경우 민박이나 펜션이 여기저기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방이 좁아도 많은 인원이 함께 자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
또 단체 여행보다는 가족이나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주류를 이뤄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거문도 역사를 활용한 예비 숙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캠핑 문화가 발달한 요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서 노천에 영국군 막사를 짓거나 기존의 일본인 가옥을 개조해서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 좋겠다. 또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즐겨 찾는 식·음료 체인점을 유치하면 어떨까? 거문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개념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거문도에는 자가용을 가져오는 이가 드물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나 관광택시가 적어 이용하기 어렵다.
영국에 '토마스기차'라는 게 유명하던데 이를 벤치마킹 해서 관광열차버스를 운영하면 좋겠다.

Q3 거문도에서 추천할만한 여행 명소가 어디인지?

A3 섬을 대표하는 곳은 거문도등대라고 생각한다. 서도(西島)에서도 남쪽에 자리한 등대는 폭이 좁지만, 바다를 가까이 둔 '목넘어 해안'을 가로질러 걷는 즐거움이 있다. 뒤이어 서늘한 바람이 가득한 동백숲을 따라 오르는 산길이 있는데, 해양성 기후에서 자생하는 독특한 식물이 많다. 2~30분 정도 가벼운 산행을 마치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데, 관백정(觀白亭)이라는 정자가 명물이다. '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정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거문도 해안과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든다.
대중적인 여행 명소 리스트에는 빠져 있지만, 서도에 있는 '거문초등학교'도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

Q4 최근 섬 음식에 관한 예능 방송이 늘어 먹거리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A4 1990년 중반 이전에는 속칭 '잡어'로 분류된 생선이 밥상에 구이나 조림으로 쉽게 오르곤 했다. 섬이나 어촌 지역을 찾는 여행객이 오인하는 부분이 자연산 수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식탁에 오르는 즉시 별도 요금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심 또한 예전과 같지 않지만, 옛 기억만으로 시골 인심이 변했다거나 팍팍해졌다며 섭섭해하는 일부 여행객이 있어 안타깝다. 자연산은 소비 수요에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물량을 생산하는 대신 자연에서 키운 산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량이 무한정일 수 없다. 육지에서 나는 식재료를 섬 주민이 주문하면 어떤가? 여객선에 실리는 순간 구입가격에서 몇천 원이 더 붙는다. 특수 지역 배송이라는 이유에서다. 연일 치솟는 물가가 무서운 요즘 값비싼 재료로 짓는 밥이니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조차 마음이 편치 않다.

거문리 이장

김경수

0:00 3:45

Q1 그동안 어찌 사셨는지?

A1 거문도가 고향이다. 집안이 대대로 부친이 일으킨 사업에 참여해서 수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선장으로 배에 오른 때가 많았다. 판매 거래처를 찾기 위해 제주도나 고흥, 여수, 완도 등지를 부지런히 다녔다. 그러다 거문도에서 갈치가 나기 시작하여 고흥 녹동항에 가서 영업을 하며 녹동항을 거점으로 삼아 수산물을 전국으로 보냈다. 그런데 1997년 추석 무렵 환갑을 맞이하신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하셨다. 사람 인생은 모를 일이라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하늘이 노래졌다. 집안의 큰 기둥이 남긴 빈자리는 무척 컸다. 사업을 위해 진 빚만이 온전히 남아 어깨를 짓눌렀다. 포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과 집을 팔고 나니 남은 게 없었다. 18년간 동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지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다. 마을 어른들의 권유를 받들어 거문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마을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Q2 직접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거나 섬에서 지내며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는지?

A2 오랫동안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단언컨대 선박 항해술에 있어 나를 따라올 거문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누군가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거나 고통받는 상황에 있으면 열 일 제쳐두고 돕는 것을 신념으로 여겨왔다. 1994년 무렵이었다. 활어를 가득 실은 운반선을 끌고 녹동에 가서 활어차에 넘겨주니 35만 원이 수중에 들어왔다. 그 후 거문도로 돌아왔는데, 동네 후배가 화상을 입었다. 어떻게 살려야 할지 걱정하며 나갈 배를 어렵게 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수항에 닿아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니 어두컴컴한 하늘이 땅에 내려앉았다.
다시 돌아와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1, 2만 원뿐이 남질 않았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되살린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또 풍랑주의보 발령으로 피항 온 제주도 어민을 살린 적도 있었다. 저녁 8시 무렵 집에서 쉬다가 보건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선박 물칸에 살려온 복어를 뱃사람들이 국으로 끓여 먹었던 모양이었다. 선원 한 사람이 죽었고, 선주는 신체가 마비되어 위독한 상황이었다. 보건소에 이르니 마비 증세가 심해진 환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 '꺽꺽' 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 애원해왔다. 과연 저 높은 파도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둠 속에서 들이치는 검은 파도를 앞에 두는 건 공포 그 자체였다.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모른다. 그저 내가 살아야 환자도 살 수 있고, 환자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는 생각뿐이었다.

Q3 요즘 거문도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A3 최근에 접어들어 어획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온 상승이나 남획과 같은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거문도를 찾는 낚싯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낚시 문화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특정 수산물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점이다. 지금은 조업에 나서는 어선보다 낚싯배 숫자가 훨씬 많다. 갈치낚시가 활발한 시기에는 1, 2백여 척에 이르는 낚싯배가 오는데, 배 한 척당 낚시 손님이 스무 명 정도 탄다면 이천여 명에서 사천여 명이다. 손님 한 명이 바다에 드리우는 낚싯대가 열 개 정도이니 수만여 개의 낚싯바늘이 갈치를 겨냥하는 셈이다.
산업으로의 어업과 레저 프로그램으로 파생된 낚시는 결이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후자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번다. 이 덕분에 음파탐지기나 어군탐지기와 같이 값비싼 장비를 앉힐 뿐만 아니라 성능 좋은 엔진을 설치하여 좀 더 손쉽고 빠르게 낚시 포인트를 점유한다. 장비 경쟁에서 뒤진 어선은 자리다툼에서도 밀려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시설 장비에 관한 의존도가 낮은 어민들이 몸소 경험을 통해 습득한 어로 지식을 과학 기술이 앞서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Q4 예전에 거문도 어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지?

A4 거문도 어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자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섬과 산에 주목했다. 먼저 앞섬과 뒷섬을 일직선상에 둔 다음 앞산과 뒷산에 나 있는 능선을 그렸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흐르는 조류를 따라가며 그물을 펴는 형태로 가남(가늠)을 봤다. 여기서 '가남(가늠)을 본다'는 말은 섬사람들이 즐겨 쓰는 언어로, 무엇인가 특정하기 어려울 때 예측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투망 작업을 반복하며 바다 밑에 '여밭'[2] 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데, 이런 구역을 황금어장으로 인식했다.
이 조업 방식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케 했던 것은 날씨에 따라 예측이 어렵기도 했다는 점이다. 안개가 끼거나 하늘이 흐려서 섬과 산을 못 보면 위치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당일 조업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옛 어른 세대부터 전승 방식으로 이어져 온 거문도 어장도(漁場圖)는 지속된 고기잡이를 통한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장비를 설치한 낚싯배가 활발히 왕래하는 바람에 씨가 말라버렸다. 수심이 50cm에 불과한 곳이라도 닻을 내린다. 수산자원 개체 수 급감이 섬 생활·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문도 삼치잡이 어장도

2) '여밭'은 바다 밑에 돌이나 작은 바위가 한데 모여 분포하는 구역을 뜻한다. 물고기가 산란하거나 서식하기에 좋아 전통 어장으로 인식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거문도 어민들은 이를 '걸'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거문도 덕촌리 어촌계장

이춘광

0:00 3:45

Q1 거문도에서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A1 거문도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성장하다가 군복무에 임했다. 제대 후에는 10여 년간 일반 상선을 타고 항해사로 지냈다. 어렵고 고된 생활이었지만 보람도 컸다.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여러 형제, 자매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강인함과 자긍심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오랜 바다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거문도수협에서 20여 년 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어촌계장이자 이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섬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돌이나 암석, 나무 등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자연 자원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며 얼마나 긴 역사를 보듬어 왔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자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원일 수 있다.

Q2 거문도 중에서 서도 쪽에 유난히 좋은 해수욕장이 많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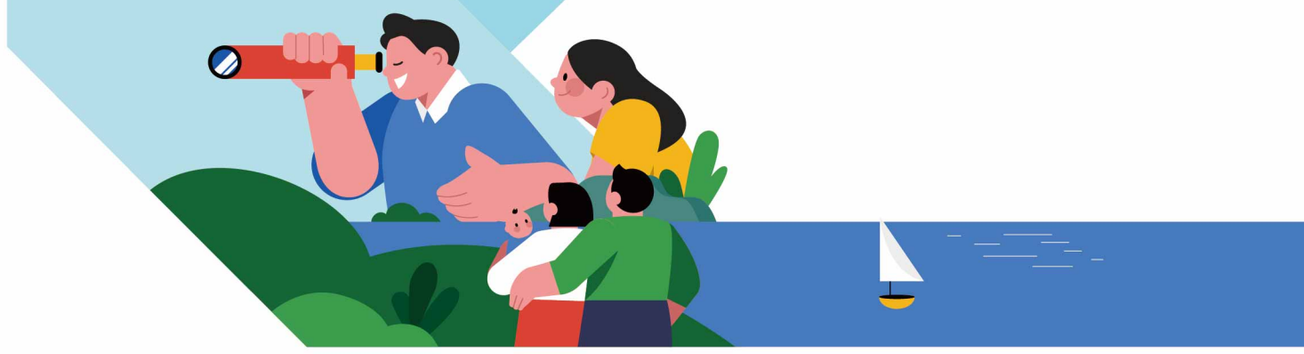
A2 다른 섬에 비해서 경관이 좋은 해수욕장이 섬 곳곳에 분포 하는 점은 큰 복이다. 서도마을에 있는 이금포 해수욕장도 좋지만, 거문도(유림) 해수욕장에 깔린 모래에는 미치지 못한다. 최근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해양레저팀 주무관이 해수욕장 점검을 위해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야간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밤에도 방문객이 안전하게 해변을 거닐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거문도에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한 해양 레저 콘텐츠가 많으니 조금만 더 부대 시설을 확충 하면 앞으로도 많은 여행객이 찾을 것으로 믿는다.

Q3 섬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꼽는다면?

A3 의료와 안전 분야에 속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여느 섬과 같이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질병이나 지병은 기본적인 약 처방으로 관리가 가능 하지만, 급히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니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응급 구조사를 상시 배치 해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처치하고 후송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이다.
섬에서 기댈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보건소밖에 없는데 자택에서 그곳까지 부축해서 가는 데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최근에도 주민 한 명이 보건소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허망했다.
법과 질서 아래 마련된 제도나 서비스 역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섬이 되기를 희망한다.

Q4 마을에서 이장과 어촌계장을 겸하며 가지는 포부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A4 당초에는 이장 활동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동네 어른들이 오셔서 “이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장이 바뀌면 동네도 10년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주민 수가 100명인데, 이장 선거 때 많이 뽑아주셔 이장이 됐다.
임기는 2년인데, 한번 재임할 수 있어 4년 까지 할 수 있다.
꽤 긴 시간 같지만, 생각보다 짧게 느껴 진다. 그만큼 살피고 돌봐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이제 시작했지만, 항시 마을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내려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섬에도 개인을 중심에 놓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옛 선조들이 일궈온 공동체 문화만큼 훌륭한 유산이 어디 있나 싶다.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은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고자 한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투어 가이드

거문도 기본 현황(2023. 12. 31. 기준)

가구·인구	1244가구·1,996명
면적	18.90㎢
해안선 길이	51km
주요 관공서	면사무소, 농·수협, 육·해경 파출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거문도 분소, 우체국, 거문초·중등학교

거문도 여객선 운항 시간표(쾌속선)

항차	여수 → 거문도		거문도 → 여수		운항선박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20	09:25	14:30	16:35	웨스트그린호
2	07:55	10:00	10:40	12:45	하 멜 호
3	14:00	16:05	16:40	18:45	

* 상기 시간은 조석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 거문도 여객선터미널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94
· 문의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 ☎ 061) 662-1144
거문항 매표소 : 061-666-4200
· 운임 : 성인 1인(웨스트그린호 : 41,500원 / 하멜호 : 46,500원)
※ 기타 사항 : 휴항일 없음 / 고흥 나로도, 여수 손죽도·초도, 거문도 동·서도 경유

거문도 여객선 운항 시간표(차도선)

평화훼리11호				
항차	고흥 녹동 → 거문도		거문도 → 고흥 녹동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00	10:10	14:20	17:30

* 상기 시간은 조석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흥 녹동신항여객선터미널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66-4
· 거문도 선착장 : 전남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 문의 : 녹동신항여객선터미널 : 061-844-4358
거문항 매표소 : 010-9752-0855
· 운임 : 성인 1인(17,000원) *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
(승용차 기준 69,600원)
※ 기타 사항 : 매주 월요일 휴항 / 여수 초도 경유

거문도 식당 (여수시 삼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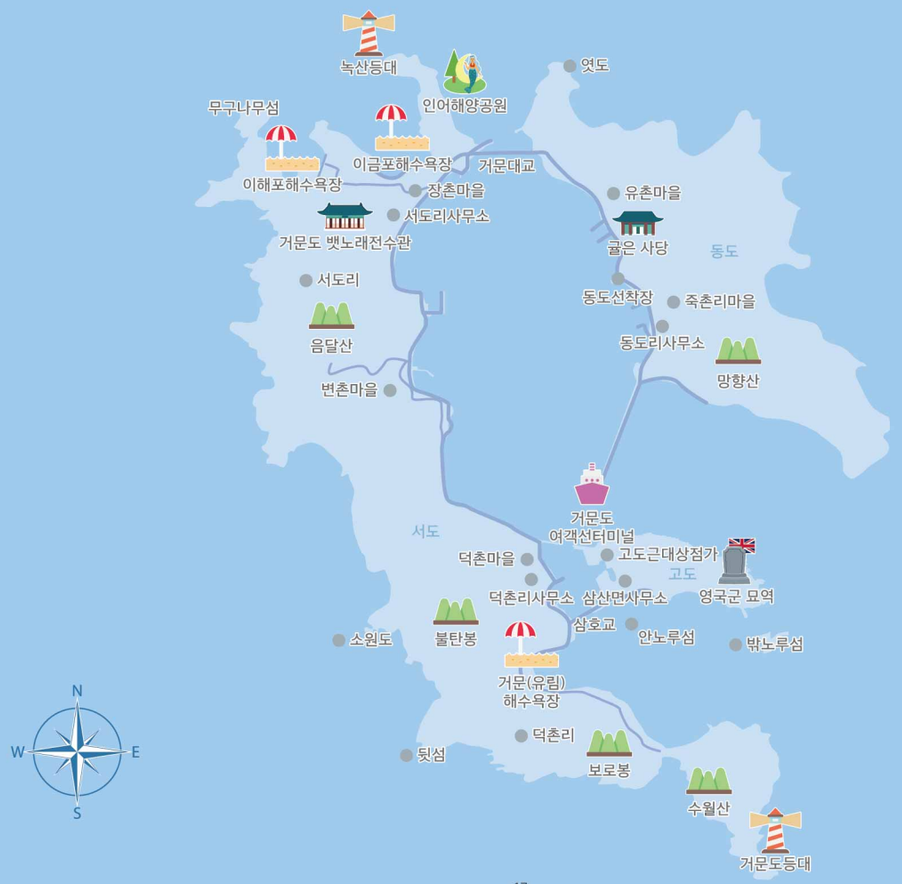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삼거리횟집	장덕로 3	061-665-0478
산호횟집	거문리 86	061-665-5802
해동음식점	거문길 132	061-666-8120
일등횟집	하늘담길 35	061-665-8303
충청도횟집	거문길 100	061-665-1986
낭만짬뽕포차	거문길 78	061-665-5882
거문식당	거문길 78	061-665-2203
영희네왕족발	거문리 89	061-665-1100
늘푸른식당횟집	거문길 54	061-665-7509
치킨아이전문점	거문길 54	010-2498-4200
신황금어장	거문길 50-1 1동	061-666-9552
심술	거문길 48	061-662-2533
거문도해오름	거문길 46	061-666-0009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번지횟집식당	거문길 44	061-666-8133
세시아	거문학교길 8	061-662-2822
진미하우스	거문길 28	061-666-8101
영광반점	거문길 22	061-665-2393
바다회관	거문길 22	061-665-6233
제일식당	거문길 14-1	061-666-1029
강동횟집	삼호교길 29	061-666-0034
행복식당횟집	삼호교길 31	0507-1476-1210
삼호교횟집	삼호교길 35	061-666-1774
거문반점	거문길 76-1	061-665-2203
드피치	삼호교길 2	061-666-0302
처갓집양념치킨	삼호교길 8	061-665-9282
카페 고도	삼호교길 8	061-665-9282

거문도 숙박업소 (여수시 삼산면)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샬롬민박	유촌2길 3	061-665-8220
대송민박	유촌1길 3-5	0507-1430-9392
큰길민박	동도로 187-1	061-666-8239
희망민박	동도로 197-1	010-4627-6242
대우네민박	장덕로 451	061-665-8400
서도민박	장덕로 449	061-666-6463
원조할매민박	서도리 828-31	061-666-8572
동백민박	장덕로 40	061-665-8461
덕성식당민박	장덕로 39-2	061-665-8321
해변민박	장덕로 7	061-666-8541
공원민박	장덕로 3	010-6634-5650
늘푸른민박	하늘담길 23-6	061-665-7509
여수하얀집	거문길 108-1	061-665-5036
백도민박	하늘담길 32	0507-1412-6318
노루섬민박	하늘담길 8	061-666-9372
섬마을민박	거문길 84	010-4606-8051
고도민박	거문길 82	061-665-7288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터미널민박	거문길 94	061-665-8281
시랜드모텔	거문길 92	061-665-1126
이오민박	거문길 84	061-665-8025
섬마을민박	거문길 84	010-4606-8051
엑스포민박	거문길 104	061-666-8036
거문황토민박	거문길 56	061-653-5888
가리비민박	거문길 48	0507-1364-4041
제일민박	거문길 42	061-666-8132
뉴백도민박	거문길 40	061-666-1874
거문도 대흥민박	거문길 30	061-666-8016
동백여관	거문길 28-7	061-666-8062
장수모텔	삼호교길 5-1 2층	061-666-1868
거문장	거문길 18	061-666-8052
행운민박	삼호교길 12	061-665-8115
해밀턴모텔	하늘담길 14-1	061-666-4242
패밀리모텔	삼호교길 16	061-666-2333
벨라섬펜션	거문길 104	010-3163-2221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섬 여행 명소

근대 시기 상점가

행정구역상 거문리에 속한 고도(古島)에는 근대 시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조성된 상점 시설이 늘어서 있다. 거문도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중간 기착지 중 하나로 근대 시기부터 1910년을 전후한 시점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정착촌을 형성했다. 멸치, 고등어 등 수산물 어획을 위한 어업 전진기지로 기능하면서 지속된 어업 활동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들어섰는데 여관이나 병원, 학교, 관공서, 조선소, 석유회사, 제빙회사, 종교시설 등이었다.

지금도 그 형태나 외관이 크게 바뀌지 않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문도 삼산면사무소 의사당과 중길상점(中吉商店)-나가토야(長門屋) 여관(현 고도 민박), 우쓰노미야 상점(현 샘물 노래방), 거문상회, 신사 터 등이다. 2022년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근대역사문화 활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섬 여행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길. 삼산면 거문학교길 14

영국군 묘역&해저케이블 육양지점

1885년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영국 내각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된 '거문도 무단 점거 사건'은 산업 혁명 이후 식민지 정책을 폈던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정부의 명령 아래 도웰 제독은 3척의 군함을 섬에 파견하여 고도(古島)를 무단 점거한 후 관측소를 설치했다. 또 동·서도를 잇는 거문대교가 조성된 방면으로 나무 방책을 설치하여 섬 바깥에서 진입하는 선박을 막는 동사에 병영 막사 등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무렵에는 중국 상하이 새들섬(Saddle Island)에서 거문도로 이어지는 해저 전선 설치도 진행되면서 군사 통신 시설 구축이 이뤄졌다.

영국군 묘역과 해저케이블 육양지점은 근대사에서 이국적인 현장을 발견하기 좋은 역사 자원으로, 오늘날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에 손꼽힌다.

찾아가는 길.
삼산면 거문리(고도 회양봉 산책로 중간 지점에 위치)

거문도등대

거문도등대는 남해안 최초의 등대라는 수식어를 지닌 섬 명소다. 1905년 4월 12일 세워진 후 120여 년 가까이 남해안의 바닷길을 밝혀왔다. 높이가 6.4m에 이르는 거문도 등탑은 흰색으로 돌과 콘크리트를 혼합한 구조물이다. 2006년 1월부터 노후화된 시설을 대신한 33m 높이의 새로운 등탑이 신축되어 옛 등대와 곁을 함께하고 있다. 거문도등대는 서도 유림해수욕장을 지나 도보 또는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걸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섬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멋진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목넘어를 가로질러 약 30분 정도 동백숲을 오르면 등대를 만날 수 있다.

찾아가는 길.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299 항로표지관리소

이금포(이끼미)해수욕장

삼도(三島, 동·서·고도 등 거문도를 일컫는 지명)에서 동·서도는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작용,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 등으로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해식애와 해식동, 해안 타포니가 해안에 다수 분포한다. 이 덕분에 만(灣) 형태를 띠는 자갈, 모래 해수욕장이 섬 곳곳에 있다.

이즘 여름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서도의 이금포 해수욕장을 추천한다. 약 200m에 이르는 드넓은 모래밭으로 구성된 이곳은 마치 적도 부근의 산호섬처럼 바닷속이 훤히 보일 만큼 수질이 맑아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서도마을과 인접해 숙식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외해(外海)에서 밀려드는 파도가 닿아 그 어느 곳보다 맑고 청명한 바다색을 띤다. 주변에 녹산 등대를 비롯해 동도를 오갈 수 있는 거문대교, 지역 특산물인 해풍쑥을 재배하는 밭이 즐비해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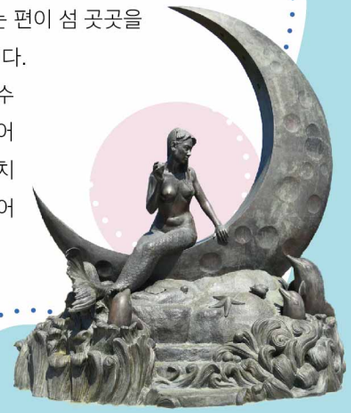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삼산면 녹산등대길 13-9

녹산등대 산책로&인어해양공원

녹산등대 산책로와 인어해양공원은 서도마을에 있는 거문초등학교와 이금포 해수욕장 사이에 난 길을 따라 찾을 수 있다. 6.3km에 이르는 산책길 중 일부는 데크 시설로 조성되어 있어 걷기 편하다. 거문도를 찾는 대다수 여행자가 도보로 명소를 찾고 있지만 섬에서 운행하는 관광택시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섬 곳곳을 둘러보기 좋다. 등대로 가는 초입에 작은 봉우리는 옛날에 봉수대가 설치된 역사가 있다.

주요 산책로에서 비껴난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팔각정 정자를 만날 수 있는데, 여수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한 쾌속선이 거문도 항로를 따라 접근하는 모습과 더불어 서도마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사진 찍기에 좋다. 키 낮은 수풀이 우거진 길은 마치 양떼가 풀을 뜯는 평원을 연상케 하는데, 가는 중간 지점에 신지끼 인어상이 있는 인어해양공원이 있으니 휴식을 취하는 쉼터로 딱이다.

찾아가는 길. 삼산면 녹산등대길 산233-1(거문도 인어해양공원)



<특집> 근·현대 신문 기사에서 만나는 거문도

소학교 증축에 천 원을 기부

전남 여수군 거문도는 인구가 오 천명이 못 되는 섬이나 교육열이 강하여 한 촌락에 한 학교씩 세워져 있다. 그 중 가장 역사가 오랜 서도(西島) 공립소학교에 이영빈(李永彬)씨가 소규모로 어업을 경영하면서 모은 돈 천 원을 기부하여 소학교를 다시 증축·확장하여 이 작은 섬에 큰 화제와 충동을 주었다 한다.

小學校增築에
千圓을寄附
李永彬氏의特志

전남여수군 거문도(麗水郡巨文島)는인구 五千이 못되는 섬이나 교육열이 강하여 한촌락에 한학교식 서고잇는데 그중가장역사가 오랜 서도공립소학교(西島公立小學校)에이영빈(李永彬)씨가 소규모의 어업을 경영하여 오는돈千원을 기부하여 소학교를 다시 증축확장하여 이 적은섬에 큰화제와 충동을 주엇다한다。

(사진은이영빈씨)

- 1940. 03. 02. 동아일보 2면 사회기사

- 1966. 06.18. 매일경제 기사

바다가 보이는 季節(계절)

바다가 보이는 계절이 온다. 바다가 그리워지는 더위가 온다. 지글지글 끓는 아스팔트 위의 생활을 피하여 바다로 향하는 도시의 습성은 올 여름에는 너무도 성급하다. 더위에 밀리고 쫓기어 바다로 향하는 도시 아가씨들의 행렬이 이제 시작됐다. 시원한 바다를 찾아 남쪽 바닷가로 내려갔지만, 그곳에는 낙지를 잡으려는 열띤 어부들의 삶 속 고달픔이 파도처럼 일고 있는 현실이 보인다. 지금 낙지가 한창인 이곳 거문도 앞바다에는 고깃배를 젓는 어부들의 구슬땀이 바닷물처럼 짜다. 그러나 바다는 말이 없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생계를 이으려는 어민들의 한결 같은 희망이 진주알 처럼 바닷속에서 빛나고 있다.

낙도 밝히는 풍차 발전, 거문도 서도리(西島里)

네덜란드식 풍차가 돌아가면서 남해 외딴섬에 1일 전깃불이 켜졌다. 20가구 1백여 주민이 고작인 전남 여천군 거문도 서도(西島) 부락이 문명의 이기를 처음 대한 것이다. 이 마을 유일의 기술자인 김oo 씨의 집념이 캄캄한 섬을 밝힌 것. 섬 전체에 세차게 부는 해풍을 이용해 전원을 개발해 보겠다고 벼르던 김 씨는 군에서 익힌 전기 기술을 발휘하여 지난해 11월 면장 이oo 씨로부터 사재 20만 원을 지원받아 자기 집 뒤뜰에 4익엽(날개) 풍차를 만들어 설치했다. 그러나 초속 5~7m 바람을 받아 돌아가는 풍차는 1분에 필요한 1천8백 회전에 크게 미달하여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김씨가 낙담하고 있을 무렵 마침 섬에 들른 김oo 여천 군수가 이 전화(電化)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군비 5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김씨는 실패 요인을 규명하여 이번에는 6익엽형으로 바꿨다. 온갖 정성을 들인 끝에 완성된 여섯 날개 풍차는 초속 4m에서도 섬 전체가 쓸 수 있는 발전량을 내기에 충분했다. 지금까지 밤마다 등잔불에 의지했던 부락에 전깃불은 물론 텔레비전까지 등장한 것이다. 섬마을 20가구 주민들은 제작비와 내선 공사까지 1백만 원을 들여 만든 풍차 발전기를 통해 앞으로 15년은 전기료 없이 전깃불을 켤 수 있게 됐다. 서도 전원 개발이 성공하자 여천군은 전깃불이 없는 다른 섬 지역으로 풍차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섬마을주민에게 전기불을 공급하는 風車와 金泰洙씨。

電氣料 안내고 TV도

마을電氣기술자가 執念이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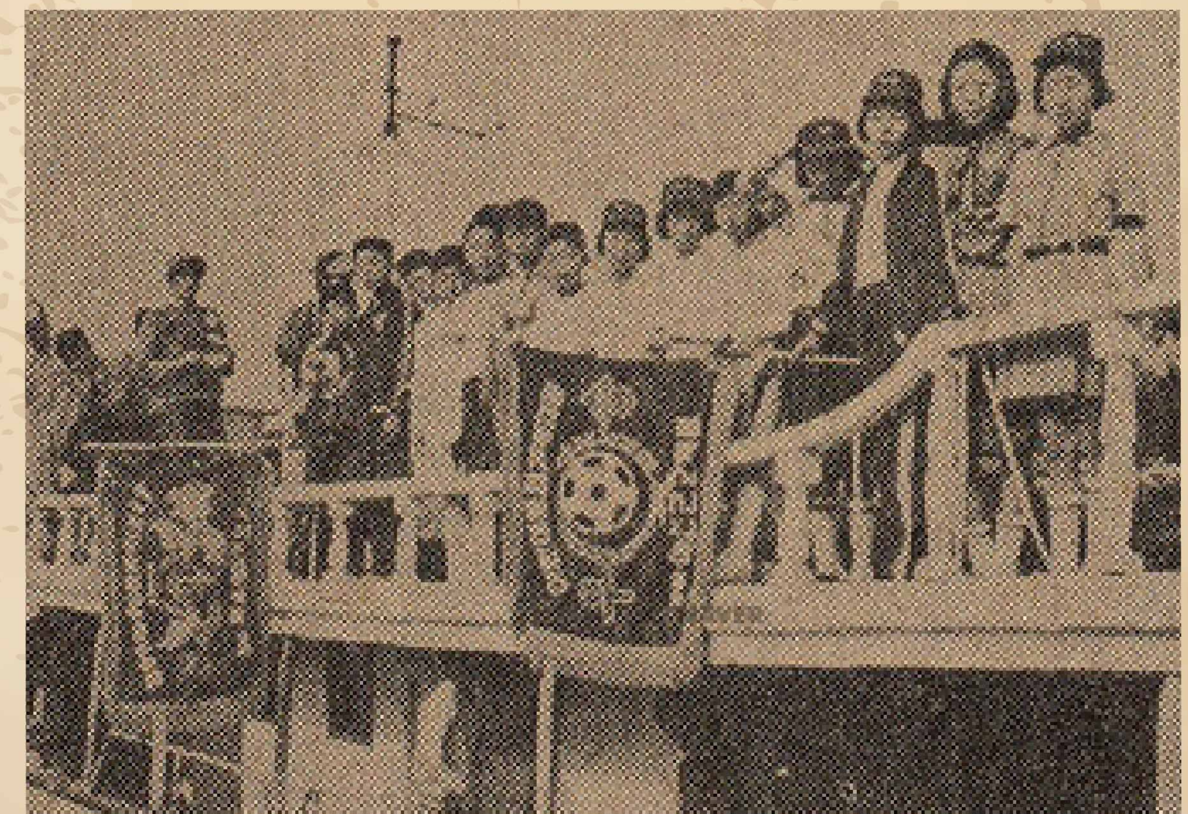
섬全體서 쓰고도 남아

- 1974. 08. 02 경향신문 7면 사회기사

핸드볼 전국 제패 꿈 부푼 '제2의 섬개구리들'

남해 고도의 섬 어린이들이 전국 제패를 꿈꾸며 열심히 핸드볼 연습을 하고 있다. 제2의 섬개구리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주인공은 여천군 삼산면 거문도 서도 국민학교 어린이들. 여수에서 남쪽으로 48마일(약 77km)이나 떨어진 이 낙도 어린이들이 핸드볼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지도 교사인 오○○씨가 부임하면서부터였다. 광주교대 재학 시절부터 핸드볼 선수 생활을 했던 오 교사는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핸드볼을 통해 섬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자 결심했다. 운동장이라곤 해풍이 몰아치는 모래밭 1백여 평. 오씨와 부인 이○○씨는 수업이 끝나면 양동이에 흙을 담아 나르며 운동장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운동장이 정비되자 304명의 전교생 중 5·6학년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소질이 있어 보이는 어린이 15명을 뽑았다. 핸드볼 연습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 것은 오 교사의 부인인 이 여사였다. 같은 교대 동창인데다 핸드볼 선수로 활동했으며, 전직 교사이기도 한 이 여사는 남편보다 더 열성적이었다. 밤에는 달빛을 벗삼아 고구마를 삶아 먹여가며 훈련 시켰다. 그러다 지난 7월 섬개구리들이 팀을 창설한 지 4개월 만에 여천군 종합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교장과 교직원, 주민 모두가 열을 올렸다. 후원회를 조직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는 등 보살핌 속 연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고된 훈련이 결실을 보아 지난 1일 1978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 겸 제4회 '전남학도 체육대회'에서 각 군 대표팀을 차례로 꺾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오 교사 부부와 여천군 교육청 임직원들은 선수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 1977. 11. 28 경향신문 8면 스포츠 기사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8월 8일, 충남 보령에서 섬의 날 행사 열려

2024년 8월 8일 섬의 날 행사가 충남 보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공식 지정된 섬의 날은 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섬 지역의 발전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2019년 목포를 시작으로 통영, 군산, 울릉도 등지에서 섬의 자연환경 보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충남 보령에서 행사가 열려 전남도에서 "섬 친구맺기 좋다"를 주제로 목포 "섬, 낭만에 취하기 좋다.", 여수 "섬, 2026년 여수에 오면 더 좋다", 강진 "함께 거닐기 딱 좋다", 해남 "해남 섬 일몰이 좋다.", 완도 "완도 섬 치유하기 좋다." 진도 "힐링하러 가기 좋다.", 신안 "섬, 예쁜 꽃 보며 걷기 좋다"로 각 섬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등 이벤트를 통해 전남 가고 싶은 섬을 더욱 알리고, 트레일러를 이용해 관광객들이 전남 섬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섬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섬코디네이터 × 섬즈업 연계 섬체험단 운영

섬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섬 주민이 직접 섬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섬코디네이터. 지난 8월 17일에는 완도 소안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섬 홍보에 나섰습니다. 청년 섬 봉사연합 (사)섬즈업 그리고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참석자들과 함께 미라마을 해변 정화활동을 한 후 다같이 모여 점심을 먹고, 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섬코디네이터가 알려주는 소중한 우리섬 이야기, 섬 환경보호를 시작으로 지구 생태계 보전까지 힘쓰는 (사)섬즈업 이야기,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섬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며 문화를 공유하는 국제워크캠프 이야기까지 사는 곳도 연령대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 어울려 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나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섬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줄 수 있었고, 섬코디네이터들은 섬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섬을 사랑하는 작은 행동 실천으로 섬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가고 싶은 섬 완도 소안도에 가다

8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워크캠프에는 13개국에서 온 24명의 참가자들이 완도 소안도에 입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소안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통놀이, 전통의상 패션쇼, 미니올림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글로컬 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광복절을 맞아 미라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50여 개의 태극기를 새로 교체하고 게양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소안미라펜션에서는 글로벌 정원을 가꾸는 활동이 있었고, 섬즈업과 섬코디네이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미라마을 해변에서의 해안 정화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섬코디네이터의 현장 강의를 통해 '가고 싶은 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참가자, 여남고등학교 학생 등 합심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8월 19일 시작된 여수 금오도 워크캠프는 12개국에서 온 24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거점 지역인 송고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음식을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남고 글로벌스쿨에서는 나라별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여남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워크캠프 참가자들에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 금오도의 천혜의 자원인 비렁길 투어와 함께, 31명의 학생들은 금오도 비렁길과 마을에 설치할 표지판을 제작했고, 2026년 여수 금오도를 찾을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해 82개의 다국적 안내판을 비렁길 거점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